

저유가에 따른 GCC 회원국들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I. 저유가 추세 지속과 산유국 간의 생산 경쟁	1
II. GCC 회원국들의 최근 경제동향	3
III. 저유가 추세와 GCC 회원국들의 프로젝트 동향	12
IV. 시사점 및 대응	14

확인 : 소장 권우석 (3779-5701)
wskwon@koreaexim.go.kr

작성 :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I. 저유가 추세 지속과 산유국 간의 생산 경쟁

1. 세계 경기침체,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저유가 추세 지속

□ 2014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하락 추세 지속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에서 안정되었으나, 2014년 7월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었음.
 - 금년 1월 2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일일종가 기준 25.56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최고가(2012.3.16자 123.51달러)의 약 21%에 불과한 수준임.
-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최대 원유수요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미국 등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이 저유가 추세 지속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1> 최근 5년간 두바이유 가격 추이: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일일종가 기준

단위: 달러/배럴



자료: NYMEX (2016.8.22자)

- 북미의 셰일오일 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원유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동결·감축 거부, 경제제재 해제로 인한 이란의 국제 원유시장 복귀 및 원유수출 증대 등도 저유가 추세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5월 중순 이후 일시적 유가 상승,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

-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4월 말 이후 배럴당 40달러대를 회복하여 5월 중순 이후 대체로 44~45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금년 중 배럴당 50달러대 진입을 기대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이슬람 테러조직 Boko Haram의 나이지리아 송유관 파괴, 대규모 산불로 인한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 차질, 쿠웨이트 국영석유 기업 노조 파업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음.
-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경쟁적으로 원유 생산량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 연준(FRB)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달러 강세가 촉발되어 국제유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에 다다르고 이라크도 증산에 나선 결과 OPEC의 7월 산유량이 일일 평균 3,339만 배럴로 8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음.

2. 사우디아라비아 vs. 이란 : 원유 생산·수출 증대 경쟁

□ 사우디아라비아 :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산유량 증대 고수

-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석유 담당 장관의 전격 교체 등을 통해 석유 권력을 왕실로 넘기면서 증산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Salman 국왕은 석유정책의 구상 및 추진 권한을 기존의 석유위원회에서 경제개발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장에 장남이자 제2왕세자인 Muhammad bin Salman 왕자(국방장관 겸임)를 임명하였음.
 - 5월 7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석유부가 폐지되면서 21년 간 재직해온 Ali al-Naimi 석유장관이 퇴진하고, 석유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신설되어 그 장관으로 Muhammad 왕자의 측근인 Khalid al-Falih 보건장관이 취임하였음.
- 5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CEO인 Amin H. Nasser는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극대화과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증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Aramco의 4월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은 약 1,000만 배럴로, 세계 원유생산량의 약 12.5%에 해당됨.

- Muhammad 왕자는 4월 개최된 주요 산유국의 산유량 동결협상에서 속적인 이란의 시장점유율 회복을 저지코자, 이란이 참여하지 않는 동결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을 무산시켰음.

□ 이란 : 당분간 원유의 생산 및 수출 증대 계획

-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이란의 5월 중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은 2015년 말 대비 73만 배럴 증가한 364만 배럴로,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이전인 2011년 11월의 수준에 도달하였음.
 - 5월 중 일일평균 원유수출량도 260만 배럴을 기록하여 2011년 말(220만 배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란은 자국의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을 현재보다 100만 배럴 더 많은 5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OPEC은 6월 2일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생산량 상한선의 설정에 관한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음.
- 이란 정부는 시장점유율을 경제제재 이전 수준으로 확실히 회복할 때까지 공격적인 생산 및 수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 고조 및 저유가 추세 지속이 예상됨.

II. GCC 회원국들의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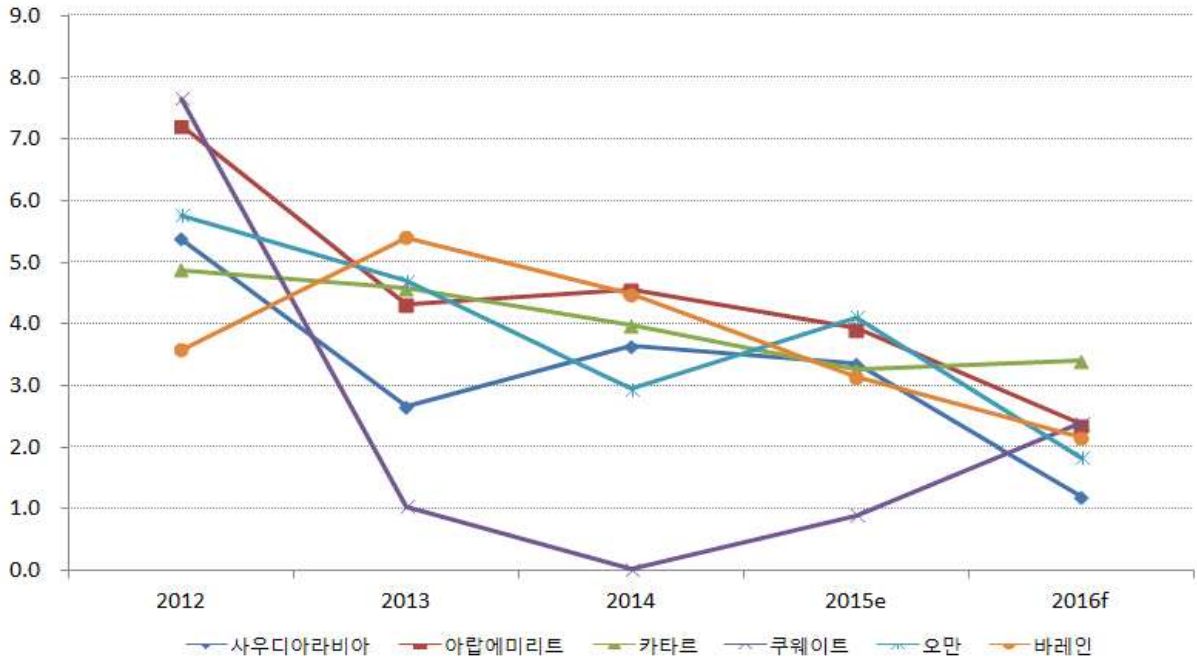
1. 저유가로 인해 GCC 회원국들의 경제상황 전반이 악화일로

□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급감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 GCC 회원국들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급격한 감소 및 그로 인한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유가하락이 현실화되기 전인 2012년 대비 모두 하락세를 시현하였음.
- 저유가 추세의 지속에 따라 2016년 경제성장률도 쿠웨이트와 카타르를 제외한 4개국이 모두 하향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쿠웨이트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영 석유기업 노조 파업이 발생한 2016년 4월은 제외) 산유량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의 연기·축소가 여타 회원국들에 비해 적은 편임.

<그림 2> GCC 회원국들의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경제성장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2016f	1.2%	2.4%	3.4%	2.4%	1.8%	2.2%
(2015e)	(3.4%)	(3.9%)	(3.3%)	(0.9%)	(4.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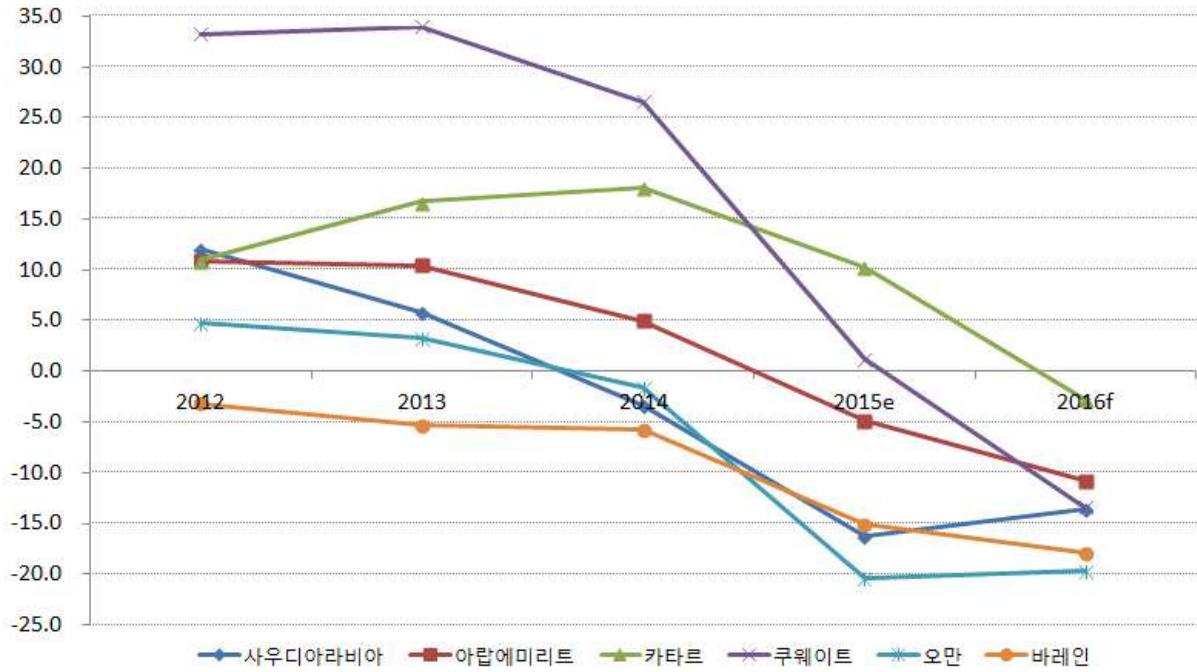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 국영 석유기업의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악화

- GCC 회원국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영 석유기업의 석유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석유수출 단가 하락으로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오만·바레인, 2015년 아랍에미리트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6개 회원국 중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 수준이 가장 낮아 (2015년 기준 카타르는 51.8달러, 쿠웨이트는 49.2달러)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16년에는 카타르와 쿠웨이트마저 적자로 전환하여, GCC 창설 이후 사상 최초로 모든 회원국들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GCC 회원국 전체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2013년 10.9%(흑자)에서 2016년에는 -10.4%(적자)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그림 3> GCC 회원국들의 최근 재정수지/GDP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재정수지/GDP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2016f	-13.5%	-10.8%	-2.7%	-13.4%	-19.7%	-17.9%
(2015e)	(-16.3%)	(-4.9%)	(10.3%)	(1.2%)	(-20.4%)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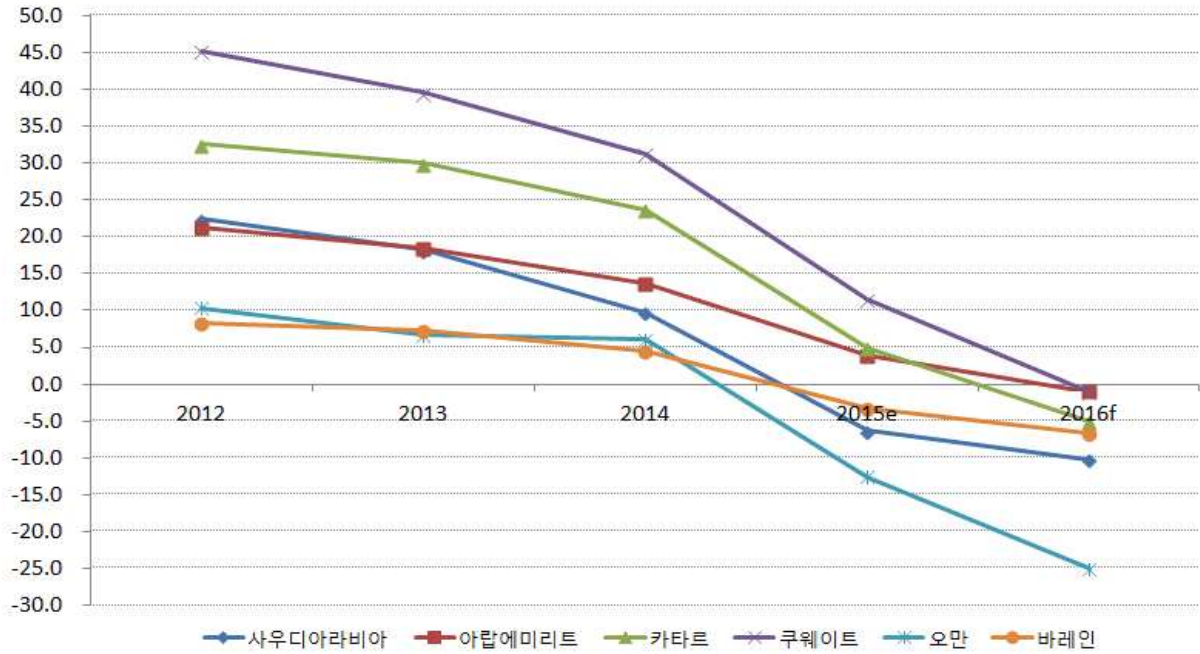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 상품수지 흑자 대폭 축소로 경상수지도 모두 적자 전환

- 2014년까지 6개국 모두 원유수출 수입에 기반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원유수출 수입 감소세 지속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오만·바레인이 적자 전환하였음.
-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되어,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도 적자로 전환하면서 6개국이 모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은 6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음. 산유국 경상적자의 핵심은 통상 원유 수출가격 하락 또는 원유수출량 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에 있음.

<그림 4> GCC 회원국들의 최근 경상수지/GDP 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경상수지/GDP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2016f	-10.2%	-1.0%	-5.0%	-1.0%	-25.1%	-6.7%
(2015e)	(-6.4%)	(3.9%)	(4.9%)	(11.5%)	(-12.6%)	(-3.2%)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 국제신용평가사, GCC 회원국의 신용등급 강등 내지 부정적 전망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저유가의 지속에 따른 재정압박과 경상수지 악화, 부채비율 상승 및 부정적 성장전망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을 1~2단계 강등하였음.

— Fitch (4.12자) : AA → AA- (1단계 강등)

— Moody's (5.14자) : Aa3 → A1 (1단계 강등)

○ Moody's는 5월에 오만(A3 → Baal)과 바레인(Ba1 → Ba2)의 신용등급도 각각 강등하였음. 특히 바레인은 정크 등급인 Ba1으로 강등된 지 2개월 만에 1단계 추가 강등되었음.

—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용등급(3개국 모두 Aa2)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6월에 바레인(BBB- → BB+)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였음.

<표 1> 최근 GCC 6개 회원국들에 대한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추이

국가명	평가사	국가신용등급 추이
사우디아라비아	Moody's	Aa3('10.2) → Aa3(negative, '16.3) → A1(stable, '16.5)
	Fitch	AA-('08.7) → AA('14.3) → AA-(negative, '16.4)
아랍에미리트	Moody's	Aa2('07.7) → Aa2(negative watch, '16.3) → Aa2(negative, '16.5)
	Fitch	[아부다비] AA(stable, '07.7)
카타르	Moody's	Aa2(stable, '07.7) → Aa2(negative watch, '16.3) → Aa2(negative, '16.5)
	Fitch	AA(stable, '15.3)
쿠웨이트	Moody's	Aa2(stable, '10.8) → Aa2(negative watch, '16.4) → Aa2(negative, '16.5)
	Fitch	AA-(stable, '02.6) → AA(stable, '08.9) → AA(stable, '11.11)
오만	Moody's	A1(negative, 2015.2) → A3(negative watch, 2016.2) → Baa1(stable, 2016.3)
	Fitch	[평가대상국이 아님]
바레인	Moody's	Baa3(negative, '15.4) → Ba1(negative watch, '16.3) → Ba2(negative, '16.5)
	Fitch	BBB-(stable, '15.6) → BBB-(negative, '15.12) → BB+(negative, '16.6)

2. 재정수지 개선 및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노력

□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지출 감축과 국채 발행 추진

- 2015년 재정수입의 70% 이상을 석유수출 수입에 의존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보조금 개혁 등을 통한 재정지출 감축과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12월 가솔린, 경유,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2016년 5월 유희토지에 대하여 매년 토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토지보유세 부과(2016년 11월부터 적용) 계획을 발표하였음.
- 아울러 국영 석유기업 Aramco의 지분 5%를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민영화 과정에 따른 국영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재정적자를 보충할 계획임.
 - 그러나 Aramco의 상장 계획에 유전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고 전체 지분의 5%를 매각하는 것에 그쳐 석유메이저들의 관심이 낮은 상태임. 영국 BP와 러시아 Lukoil은 이미 Aramco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음.
-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적자 보충을 위해 25년 만에 국제채권시장에서 100억~1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여타 회원국들도 보조금 감축, 세제개혁, 국채 발행 등 추진

1) 각종 보조금의 감축

- GCC 6개국은 2014년 1,600억 달러의 에너지 보조금을 자국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GCC 국가 전체의 당해년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 보조금은 GCC 국가들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 지급범위는 휘발유, 경유, 등유, 전기 등 에너지는 물론 상·하수도, 고기, 빵, 밀가루 등까지 포괄하고 있음.
- 그러나 저유가 지속으로 재정수지 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GCC 각국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보조금 폐지 또는 삭감에 나서고 있음.
 - UAE는 2015년 8월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였음.
 - 카타르는 2016년 1월 무연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여, 무연 휘발유 가격을 30% 인상하였음.
 - 오만은 2016년 1월 연료보조금을 삭감하여 디젤과 휘발유 가격을 33% 인상하였음. 아울러 정부 보조금 지출을 전년대비 64% 감축할 계획임.
 - 바레인은 2015년 4월 산업용 천연가스 보조금 폐지에 이어 10월 닭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도 보조금 폐지 또는 삭감을 검토 중임.

2) 무세(無稅) 정책 포기 : 부가세, 법인세 등 도입

- GCC 6개 회원국들은 2015년 12월 7일 부가가치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음. 도입 시기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대체로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UAE 재무부는 2016년 1월 부가가치세가 3~5%의 세율로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하였음.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UAE 정부의 연간 재정 수입 증가분은 27억~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오만 정부는 법인세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할 계획이며, 부과대상도 연 매출 3만 오만리얄(약 78,000달러)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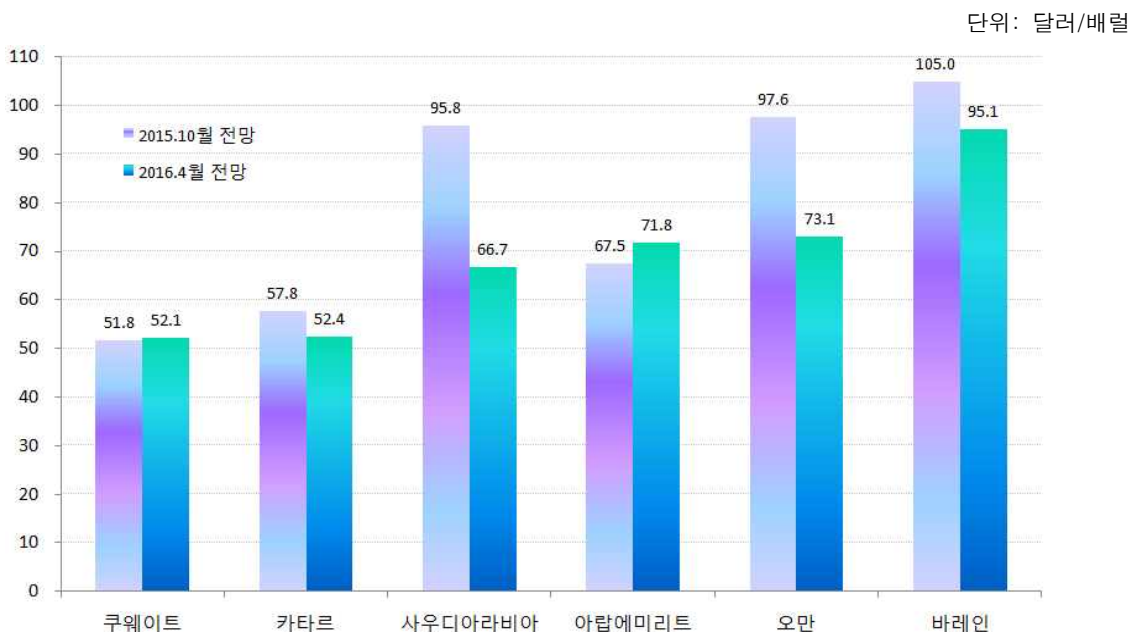
3)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국채 발행 추진

-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월 아부다비 정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여타 토후국 정부들과 연방 정부도 국채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어 5월에 카타르가 90억 달러 규모, 6월에 오만이 2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음. 아울러 쿠웨이트가 국제 채권시장에서 99억 달러, 국내 채권시장에서 66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의 안정적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배럴당 연평균 70달러대 중반의 유가수준 필요

- IMF는 2016년 4월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재정정책 개편에 따라 동국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수준이 2015년 94.8달러에서 2016년 66.7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IMF는 2015년 10월의 보고서에서는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유가수준을 전년보다 1달러 더 많은 95.8달러로 전망한 바 있음.
- IMF는 동 보고서에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여타 GCC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재정개혁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여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한 배럴당 유가수준 전망을 하향 조정하였음.

<그림 5> GCC 회원국들의 2016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국제유가 수준 전망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October 2015 & April 2016

- 다만, 유가가 2016년 평균 70달러대 중반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쿠웨이트와 카타르를 제외한 GCC 회원국들은 대폭적인 재정개혁 없이는 2016년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회원국들의 재정수지 안정화는 유가상승에 못지않게 재정개혁의 폭과 속도에 달려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 GCC 국가들의 대폭적인 재정개혁을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의 축소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선별적 추진 등을 통한 정부지출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임.
- 그러나 민심 안정에 큰 역할을 해온 보조금의 축소와 경제성장률 유지에 일익을 담당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재검토는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뜻 단행하기 어려움.

□ GCC 각국의 국부펀드 운용 상황

- GCC 6개국은 주로 원유·천연가스 수출 수입(收入)을 바탕으로 하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¹⁾를 운용 중임.
 - 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국부펀드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해당국의 외채상환위험이 완화되고, 따라서 재정부담도 간접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됨.
- UAE의 국부펀드는 2016년 6월 기준 운용자산 총액(추정치)이 1조 2,658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임.
 - 이중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아부다비투자청)의 운용자산은 7,92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부펀드 중 노르웨이 국부펀드(8,476억 달러)와 중국 국부펀드(8,138억 달러)에 이어 3위 규모임.
-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7,424억 달러, 쿠웨이트가 5,920억 달러, 카타르가 2,56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각각 운용 중임. 반면 오만(407억 달러)과 바레인(106억 달러)의 국부펀드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1) 국가가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또는 상품 수출을 통한 재정흑자 등 외화잉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성, 운용하는 투자펀드 또는 투자기구로, 정부가 그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감독함. 자원조달 방법에 따라 원유 등 원자재 수출에서 발생하는 정부 수입을 기초재원으로 하는 상품 펀드(commodity fund), 원자재 수출과 무관하게 국제수지 흑자 등 외환보유고나 재정흑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비상품 펀드(non-commodity fund)로 구분됨.

<표 2> GCC 6개국의 국부펀드 운용자산 규모 (2016년 6월 추정치)

단위: 억 달러

국가명	국부펀드명	운용자산 규모
아랍에미리트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7,920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1,960
	Abu Dhabi Investment Council	1,100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	663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663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340
	Ras Al Khaimah Investment Authority	12
아랍에미리트 소계		12,658
사우디아라비아	SAMA Foreign Holdings	5,824
	Public Investment Fund	1,600
	사우디아라비아 소계	
쿠웨이트	Kuwait Investment Authority	5,920
	쿠웨이트 소계	
카타르	Qatar Investment Authority	2,560
	카타르 소계	
오만	Oman Investment Fund	60
	State General Reserve Fund	340
	Tanmia	7
	오만 소계	
바레인	Mumtalakat Holdings	106
	바레인 소계	

자료: SWFI(www.swfinstitute.org)

III. 저유가 추세와 GCC 회원국들의 프로젝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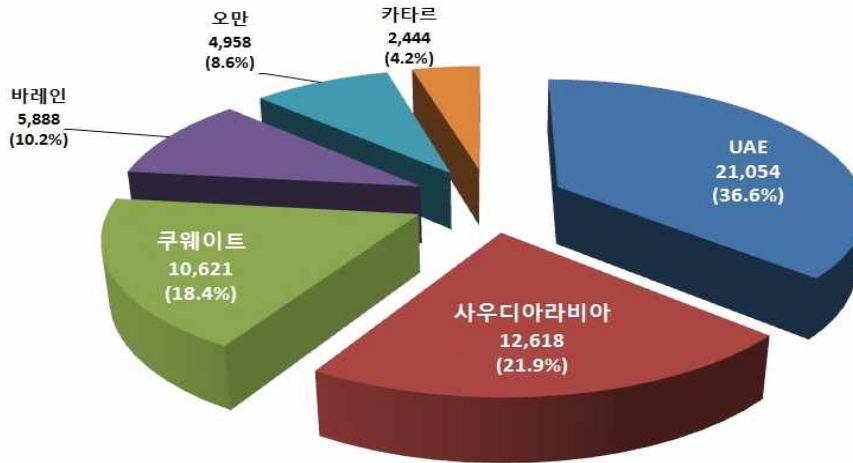
□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

-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프로젝트 전문지인 MEED의 집계에 따르면, 2016. 1~7월 중 GCC 6개국의 전체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규모는 575.8억 달러로 집계되었음.
 - 이는 MEED가 금년 초 제시한 GCC 6개국의 2016년 중 프로젝트 계약 체결총액 전망치(1,401.5억 달러)의 41.1% 수준임. 특히 7월 중 계약체결액(82.5억 달러)은 전년동월(245.4억 달러)의 33.6%에 그쳐,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프로젝트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임.
- 국가별로는 UAE가 210.5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126.2억 달러, 쿠웨이트 106.2억 달러, 바레인 58.9억 달러, 오만 49.6억 달러, 카타르 24.4억 달러의 순임.
 - MEED의 연초 전망은 사우디아라비아 29.1%(407.6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26.1%(365.1억 달러), 쿠웨이트 17.4%(243.6억 달러), 카타르 15.9%(222.5억 달러), 오만 9.6%(134.5억 달러), 바레인 2.0%(28.1억 달러)임.

- 바레인은 2016년 4월 Alba 알루미늄 제련소 6단계 확장 공사 계약 체결 (US\$30억)로 이미 7월 말에 연초 전망의 2배 이상을 체결하였음.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 말까지의 누계액이 연초 전망의 31.0%에 불과함.

<그림 6> 2016. 1~7월 GCC 6개국의 국가별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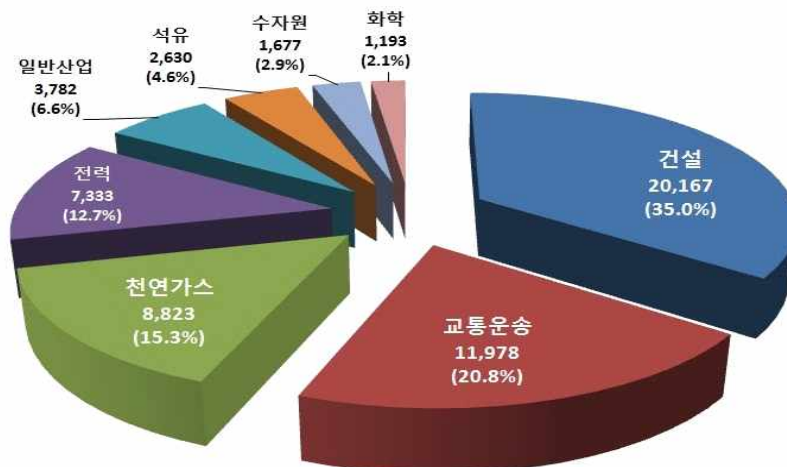
자료: MEED

□ 향후 프로젝트 추진은 필수불가결한 부문으로 집중될 전망

- 2016. 1~7월 중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의 부문별 비중은 건설 35.0%(201.7억 달러), 교통운송 20.8%(119.8억 달러), 천연가스 15.3%(88.2억 달러), 전력 12.7%(73.3억 달러) 등의 순임. 석유는 저유가 지속의 여파로 인해 26.3억 달러(4.6%)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

<그림 7> 2016. 1~7월 GCC 6개국 전체의 부문별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단위: 억 달러



자료: MEED

-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시장규모 상위 3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이 전력 외의 일반 인프라를 포함한 건설 및 교통운송 부문에 주로 집중하고 있음.

<표 3> 2016. 1~7월 GCC 6개국의 국가별, 부문별 프로젝트 계약 체결 누계액

단위: 억 달러

국가명	건설	교통 운송	천연 가스	전력	일반 산업	석유	수자원	화학	합계
아랍에미리트	10,408	7,349	335	1,263	631	320	748	-	21,054
사우디아라비아	4,102	135	4,385	1,885	56	732	130	1,193	12,618
쿠웨이트	3,192	3,315	2,967	11	-	613	523	-	10,621
바레인	22	1,082	355	1,384	3,000	-	45	-	5,888
오만	689	72	781	2,790	95	425	106	-	4,958
카타르	1,754	25	-	-	-	540	125	-	2,444
합계	20,167	11,978	8,823	7,333	3,782	2,630	1,677	1,193	57,583

자료: MEED

- 국제유가가 단기간 내에 GCC 회원국들의 균형재정 회복을 위한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OPEC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감산 합의가 필수적임.
- 그러나 산유량을 둘러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대립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OPEC 회의에서 유의미한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따라서 GCC 회원국들의 프로젝트 추진은 당분간 주택과 기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 교통운송 및 전력 등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부문에 계속 집중되는 한편, 석유 부문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IV. 시사점 및 대응

□ GCC 회원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은 하향 조정 압력에 노출될 전망

- 5월 이후 국제유가가 잠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OPEC 회원국들은 이란이 동참하지 않는 감산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9월 26일로 예정된 OPEC 회의에서 감산이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특히 중국의 석유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유가의 본격적인 상승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제유가가 확실한 상승세로 반전되어도 그 상승폭이 매우 크지 않는 한, GCC 회원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하향 조정의 압력에 노출될 전망이다.

□ GCC 회원국들의 건설 프로젝트 발주 감소 및 발주조건 악화에 대응하여 우리 건설기업들 간의 협력 강화 필요

- GCC 회원국들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지출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도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부문에 집중되어 발주총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 프로젝트 발주시에도 수주기업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과도한 수준의 발주 가격 할인을 요구하여 수주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주기업들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금융 조달까지 직접 책임지게 하는 등 수주기업들에 보다 불리한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음.
- GCC 회원국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건설기업들의 주요 해외시장으로, 발주 감소 및 발주조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해외 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력 강화가 필요함.

〈표 4〉 2016. 1~7월 중 우리 건설기업들의 대 GCC 회원국별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기간 중 계약액			
	2014년	2015년	2015.1~7월	2016.1~7월
쿠웨이트	7,739	4,961	3	3,304
사우디아라비아	2,951	3,592	2,906	1,009
아랍에미리트	3,736	382	304	187
카타르	1,670	2,132	37	181
오만	430	701	0.8	7
바레인	-	655	-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oki1122@koreaexim.go.kr